

반도체용 에폭시 수급 안정

재고물량 및 생산능력 증설로 ... 스미토모 재가동 전망

반도체용 에폭시수지 수급은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2년 기준 국내 반도체용 에폭시수지 수요는 1700톤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했으며 93년에는 2000톤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난 7월 스미토모 화학공장 폭발 이후 다소 불안한 공급양상을 보였다.

기업별에폭시수지생산현황 (단위: M/T,년)			
구 분	사고전생산량		사고후생산량
	생산능력	실생산량	93년 9~11월 93년12월이후
住友化學	11,000	6,000	- 3,000
日本化薬	6,000	4,000	6,000 6,000
東都化成	2,500	1,500	2,000 2,000
大日本インク	1,500	200	1,000 1,000
油化Shell	1,000	200	800 1,000
합 계	22,000	11,900	9,800 13,000

그러나 8월부터 93년말까지 반도체용 에폭시수지 세계 총수요 4900톤 중 7월말 기준 재고량이 3400톤에 달하고 8월부터 93년말까지 생산가능 물량이 日本化薬 2500톤, 기타 1300톤 등 3800톤으로 공급능력이 7200톤에 달해 총수요에 비해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93년 12월 이후의 수급전망을 보면 지난 8월18일 스미토모화학 공장의 기자회견시 동공장의 사고 조사결과 피해 정도가 예상보다 작아 93년 12월부터 사고전 생산시설의 50%인 연산 3000톤을 가동할 수 있고, 日本化薬에서 9월부터 생산물량을 연산 4000톤에서 6000톤으로 50% 증가함과 아울러 여타기업에서 연산 4000톤을 생

산함으로써 전체 생산이 연간 1300톤에 달하여 연간수요 10500톤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스미토모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에폭시수지 구득난과 반도체의 생산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용 재료의 국산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3/10/4 · 11>